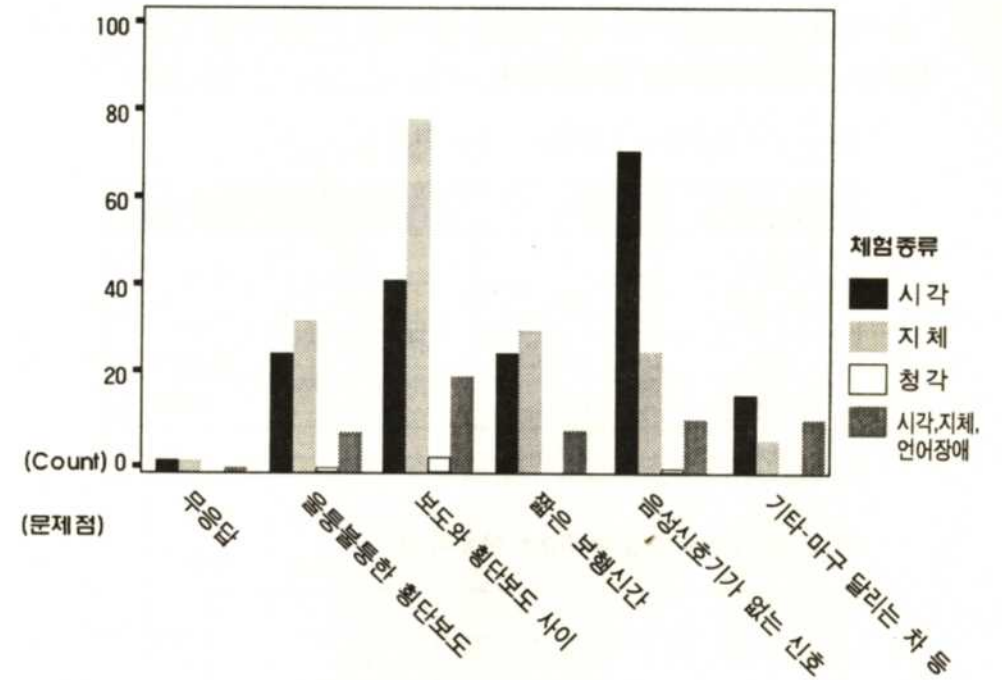


〈표 13〉 장애체험별 횡단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청각·언어장애		
문 제 점	무응답	빈도	3.0	3.0		1.0	7.0
		문제점의 %	42.9	42.9		14.3	100.0
		체험종류의 %	1.7	1.8		1.9	1.7
		전체 %	0.7	0.7		0.2	1.7
	울통불통한 횡단보도	빈도	26.0	33.0	1.0	6.0	66.0
		문제점의 %	39.4	50.0	1.5	9.1	100.0
		체험종류의 %	14.5	19.5	16.7	11.3	16.2
		전체 %	6.4	8.1	0.2	1.5	16.2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	빈도	41.0	78.0	4.0	19.0	142.0
		문제점의 %	28.9	54.9	2.8	13.4	100.0
		체험종류의 %	22.9	46.2	66.7	35.8	34.9
		전체 %	10.1	19.2	1.0	4.7	34.9
	짧은 보행시간	빈도	26.0	30.0		6.0	62.0
		문제점의 %	41.9	48.4		9.7	100.0
		체험종류의 %	14.5	17.8		11.3	15.2
		전체 %	6.4	7.4		1.5	15.2
	음성 신호가 없는 신호등	빈도	67.0	20.0	1.0	11.0	99.0
		문제점의 %	67.7	20.2	1.0	11.1	100.0
		체험종류의 %	37.4	11.8	16.7	20.8	24.3
		전체 %	16.5	4.9	0.2	2.7	24.3
기타- 마구 달리는 차 등	빈도	16.0	5.0		10.0	31.0	
	문제점의 %	51.6	16.1		32.3	100.0	
	체험종류의 %	8.9	3.0		18.9	7.6	
	전체 %	3.9	1.2		2.5	7.6	
전 체	빈도	179.0	169.0	6.0	53.0	407.0	
	문제점의 %	44.0	41.5	1.5	13.0	100.0	
	체험종류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44.0	41.5	1.5	13.0	100.0	

도표 13) 장애체험별 횡단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



장애체험별 횡단보도의 문제점이라고 느낀 것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9명 중 67명, 37.4%가 음성신호가 없는 신호등이라고 답하였으며, 22.9%인 41명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이라고 답하였다. 울통불통한 횡단보도와 짧은 보행시간은 각각 26명이 응답하였으며, 16명은 기타로 답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78명, 46.2%가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이라고 답하였으며, 19.5%인 33명이 울통불통한 횡단보도라고 답하였다. 짧은 보행시간은 17.8%인 30명이 답하였으며, 20명은 음성신호가 없는 신호등이라고 하였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4명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이라고 답하였으며, 울통불통한 횡단보도와 음성신호가 없는 신호등도 각각 1명씩 지적하였다.

또한 시각·지체·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35.8%가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턱이라고 답하였으며, 20.8%인 11명이 음성신호가 없는 신호등이라고 답하였다. 10명, 18.9%가 기타로 응답하였으며, 짧은 보행시간과 울통불통한 횡단보도는 각각 6명이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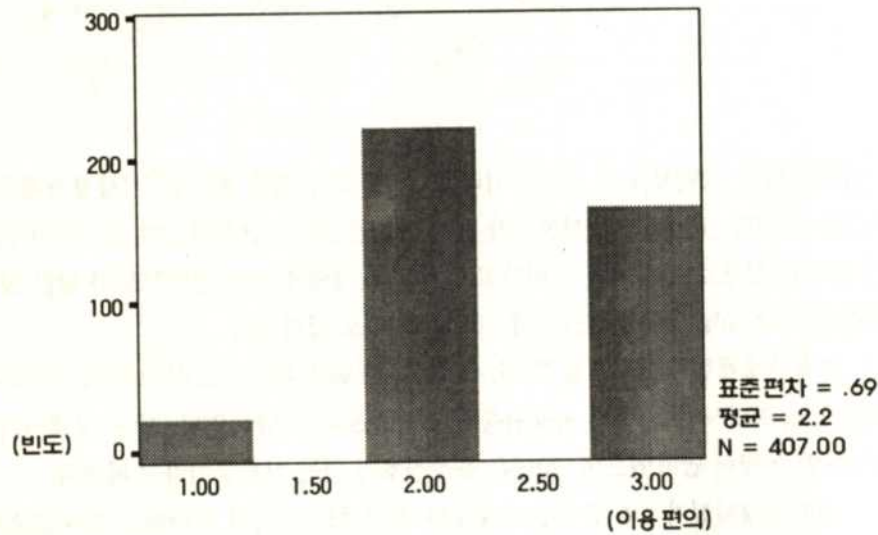
8)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의 편의성에 대한 척도로는 '1. 아주 편함, 2. 보통, 3. 아주 불편'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무응답	1.0	0.2	
아주 편함	28.0	6.9	7
보통	217.0	53.3	60.4
아주 불편	161.0	39.6	100.0
합계	407.0	100.0	

〈도표 14〉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



응답자 총 407명의 53.3%인 217명이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39.6%인 161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였다. 6.9%인 28명이 아주 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응답이 1명이다.

장애체험별로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을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종류를 독립변수로,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장애체험별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청각		
이용 편의성	아주 편함	빈도	12.0	14.0	1.0	1.0	28.0
		이용편의의 %	42.9	50.0	3.6	3.6	100.0
		체험종류의 %	6.7	8.3	16.7	1.9	6.9
		전체 %	3.0	3.4	0.2	0.2	6.9
	보통	빈도	101.0	85.0	2.0	29.0	217.0
		이용편의의 %	46.5	39.2	0.9	13.4	100.0
		체험종류의 %	56.7	50.3	33.3	54.7	53.4
		전체 %	24.9	20.9	0.5	7.1	53.4
	아주 불편	빈도	65.0	70.0	3.0	23.0	161.0
		이용편의의 %	40.4	43.5	1.9	14.3	100.0
		체험종류의 %	36.5	41.4	50.0	43.4	39.7
		전체 %	16.0	17.2	0.7	5.7	39.7
전체	빈도	178.0	169.0	6.0	53.0	406.0	
	이용편의의 %	43.8	41.6	1.5	13.1	100.0	
	체험종류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43.8	41.6	1.5	1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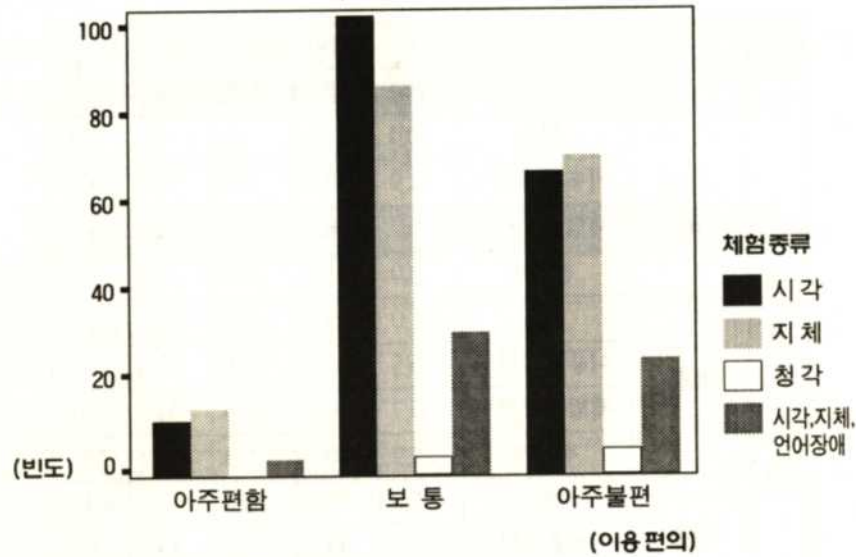
장애별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8명 중 101명, 56.7%가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36.5%인 65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였다. 6.7%에 해당하는 12명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50.3%에 해당하는 85명이 보통이라고 대답하였으며, 41.4%인 70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였다. 8.3%에 해당하는 14명이 아주 편하다고 답하였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3명이 아주 불편하다고 대답하였으며, 2명이 보통, 1명이 아주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각·지체·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54.7%에 해당하는 29명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4%에 해당하는 23명의 학생이 아주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1명만이 아주 편하다고 하였다.

[도표 15] 장애체험별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의 편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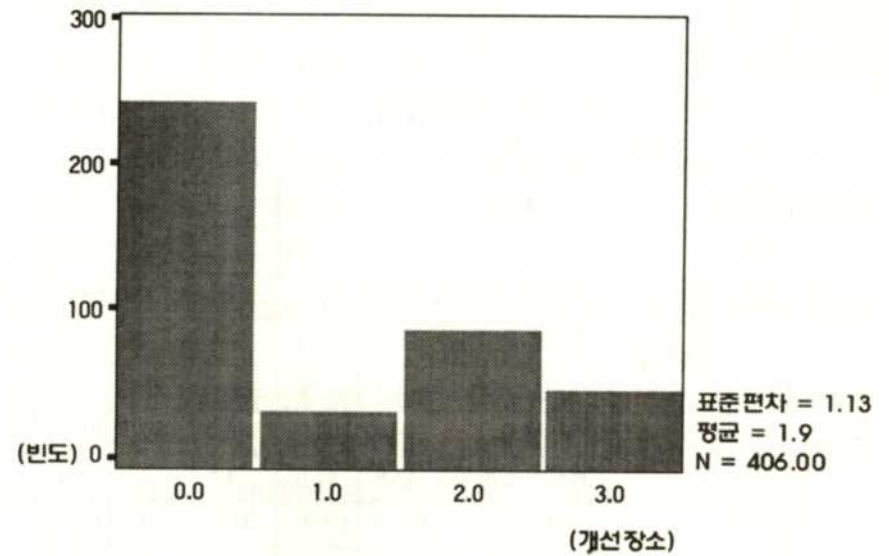
9)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것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것에 대한 척도로는 '1. 보도, 2. 횡단보도, 3. 시설(이용했던 시설), 4. 기타'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것

항목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보도	237.0	58.2	58.4
횡단보도	35.0	8.6	67.0
시설(이용했던 시설)	83.0	20.4	87.4
기타-경사,계단 등	51.0	12.5	100.0
합계	406.0	99.8	100.0
시스템 결측값	1.0	0.2	

[도표 16]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것



응답자 총 406명의 58.2%인 237명이 보도라고 응답하였으며, 20.4%인 83명이 이용한 시설이라고 답하였다. 12.5%인 51명이 기타에 경사, 계단 등을 지적하였으며 8.6%인 35명이 횡단보도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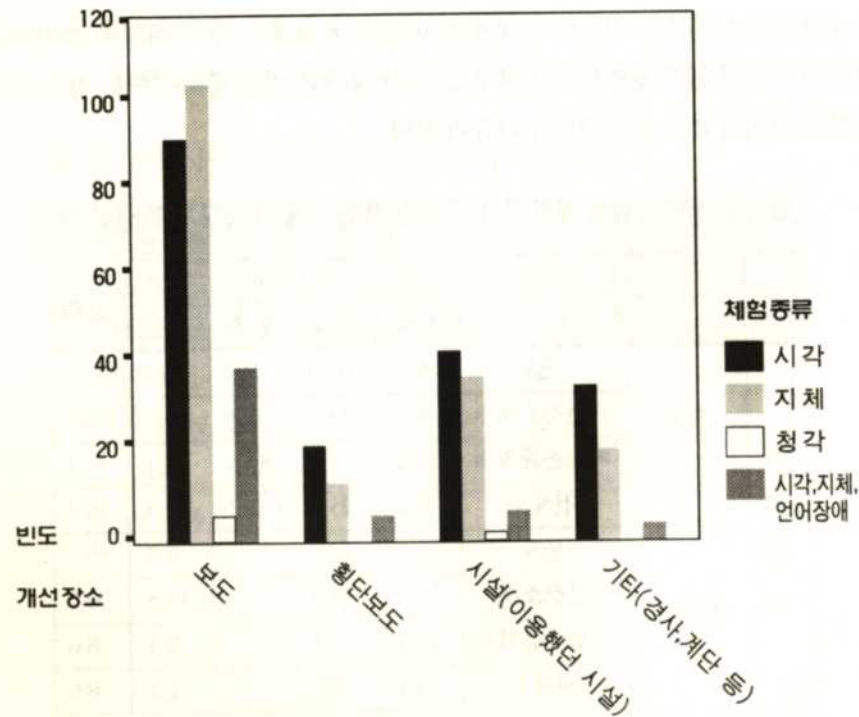
장애체험별로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불편했던 것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애종류를 독립변수로, 가장 불편한 것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장애체험별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것

개선장소	장애종류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보도	빈도	90.0	104.0	5.0	38.0	237.0
	개선장소의 %	38.0	43.9	2.1	16.0	100.0
	체험종류의 %	50.6	61.5	83.3	71.7	58.4
	전체 %	22.2	25.6	1.2	9.4	58.4
횡단보도	빈도	18.0	12.0		5.0	35.0
	개선장소의 %	51.4	34.3		14.3	100.0
	체험종류의 %	10.1	7.1		9.4	8.6
	전체 %	4.4	3.0		1.2	8.6

		체험종류				전체	
		시각	지체	청각	시각·지체·언어		
개선 장 소	시설 (이용했던 시설)	빈도	40.0	36.0	1.0	6.0	83.0
		개선장소의 %	48.2	43.4	1.2	7.2	100.0
		체험종류의 %	22.5	21.3	16.7	11.3	20.4
		전체 %	9.9	8.9	0.2	1.5	20.4
	기타 (경사, 계단 등)	빈도	30.0	17.0		4.0	51.0
		개선장소의 %	58.8	33.3		7.8	100.0
		체험종류의 %	16.9	10.1		7.5	12.6
		전체 %	7.4	4.2		1.0	12.6
전 체	빈도	178.0	169.0	6.0	53.0	406.0	
	개선장소의 %	43.8	41.6	1.5	13.1	100.0	
	체험종류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43.8	41.6	1.5	13.1	100.0	

[도표 17] 장애체험별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했던 것



장애체험별 생활시설 및 공공장소 이용시 가장 불편하게 느낀 것에 대한 평가는 시각장애체험자 178명 중 90명, 50.6%가 보도라고 답하였으며, 22.5%인 40명이 이용했던 시설이라고 답하였다. 16.9%에 해당하는 30명이 기타로 경사, 계단이라고 하였으며, 10.1%에 해당하는 18명이 횡단보도를 지적하였다.

지체장애체험자 169명 중 104명, 61.5%가 보도라고 대답하였으며, 36명, 21.3%가 이용했던 시설이라고 대답하였다. 10.1%에 해당하는 17명이 기타로 응답하였으며 12명이 횡단보도라고 하였다.

청각장애체험자 6명 중 5명이 보도라고 답하였으며, 1명이 이용했던 시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시각·지체·청각장애를 모두 체험한 53명의 학생들 중 71.7%에 해당하는 38명의 학생이 보도라고 대답하였으며, 6명, 11.3%가 이용했던 시설이라고 답하였다. 9.4%에 해당하는 5명이 횡단보도로 응답하였으며 4명이 기타라고 하였다.

10) 장애체험 느낀 점을 통한 자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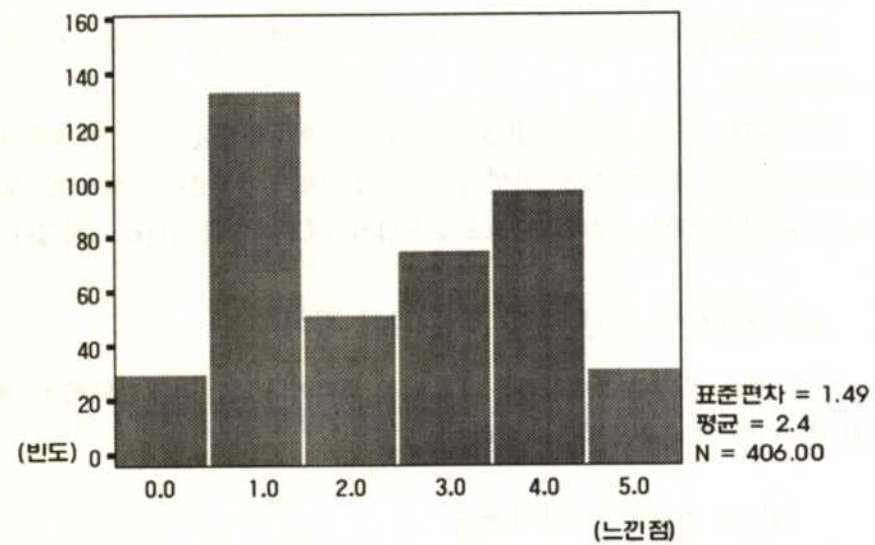
장애체험 느낀 점은 장애체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나 느낀 점을 간단히 쓰기에 대한 결과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장애체험 느낀 점 쓰기

느낀점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무응답	27.0	6.6	6.6
1. 불편, 힘들것 같다.	137.0	33.7	40.3
2. 편견을 버려야 겠다.	51.0	12.5	52.8
3. 도와주어야 겠다.	67.0	16.5	69.3
4.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95.0	23.3	92.6
5. 기타 - 무서웠다 등	30.0	7.4	100.0
합 계	407.0	100.0	

조사대상 407명 중 27명이 무응답으로 결측값을 보였으며, 33.7%인 137명이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힘들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23.3%인 95명이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16.5%인 67명이 장애인을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였고, 12.5%인 51명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다고 하였다. 기타는 30명으로 무서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표 18] 장애체험 느낀 점 쓰기



외국의 장애체험 교육방법 및 절차

목적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회적 편견 해소
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일반 시민
장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장애인 문화센터
방법	1.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 참여 2. 장애인 직업훈련 과정 체험 3. 장애인 문화 프로그램 참여 4. 장애인 가정 방문 체험
절차	1. 신청 접수 2. 사전 교육 (장애 이해) 3. 체험 프로그램 참여 4. 체험 후 설문조사 실시 5. 체험 결과 발표 및 피드백

1. 일본의 장애체험 교육

□ 사례 1. 고지현 오사키 초등학교 5학년 종합학습
배리어프리를 생각하자 행동계획 (전 26시간)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는 무엇인가? (2시간) -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인에 관한 비디오를 시청한다.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체험이나 아이 마스크 체험을 해보자. (2시간) - 코우치 시 장애인 복지 센터에서 체험 학습을 한다. -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교류하자.(2시간) - 코우치 시 장애인 복지 센터에서 자기 소개를 하는 등 교류한다.
조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 그룹단위로 조사하자.(3시간) -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 (찍을 지어 휠체어, 혹은 아이 마스크를 하고 쇼핑을 하는 등) - 전화나 메일로 질문을 하거나 책 인터넷 등으로 조사한다. · 아가와무라는 배리어프리가 되어있는가? (5시간) - 마을 내 시설이나 건물이 배리어프리가 되어 있는가 조사한다. · 과외「건강 기쁨 축제」(코우치시 중앙공원)에 참가하자.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해 온 것을 정리하자. (5시간) - 상대의 입장에서 표현방법을 생각해 정리한다.
홍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에 대해서 생각하자. (2시간) - 청각장애인과 TV 회의시스템으로 의견을 교류한다. 시각장애, 지체장애인과 TV 회의시스템으로 의견 교류를 한다. (본시 2/2)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자 (3시간) - 배리어프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확산시키자.(2시간) - 우리들이 조사해 온 배리어프리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

※출처 : <http://www.edu.net-kochi.gr.jp/home/oosaki-e/baria/katudo.htm>

□ 사례 2 오오이치 초등학교 제 6학년 1조 종합적인 학습 활동안¹⁾

1. 단원명 삶의 모습을 응시하자.

-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

2. 취지

〈단원 설정의 이유〉

아동은 초등학교 생활을 앞으로 4개월 후에 마치게 된다. 탁아소 시절부터 거의 10년을 같은 멤버로 보내온 아동에 있어 다가올 중학교 생활은 새로운 출발의 연속이 된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는 상대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 때 바른 자신의 생각을 가져 올바르게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이 다른 사람의 사람의 방법을 접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는 학습이 필요하다.

거기서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접하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을 깨닫는 동시에 장애를 넘어 자립하는 삶의 방법에서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고 보다 확대된 견해나 가치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단원을 설정했다.

〈단원과 아동〉

아동은 음악회에서 수화를 접하면서 장애를 가지면서도 자신이 꿈을 의지를 갖고 빛나는 활약을 하는 사람들(수축에 장애를 가지는 마라톤 주자,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청각장애를 가진 여배우 등)에 대한 학습을 했다. 또 운동회나 납량제 등으로 하리마 복지관에 갈 기회가 있어 장애를 가지는 분들의 모습도 보았다. 그러나, 아동에 있어 그들은 특별한 존재이고, 심신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자유스럽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수학급의 아동에 대해서 따뜻하게 접하는 것이 가능한 아동이므로 교류의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스스로 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태도나 문제해결 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시키면서 과제 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1) <http://www.hyogr-edu.yashiro.hyogr.jp>

〈단원의 구상〉

이번 학교 건물의 개축에 의해,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을 위한 시설이 증가했다. 그것들이 각각 어떤 장애를 가지는 사람을 위해서 개량되었는지를 서로 이야기한 것과 음악회에서의 학습으로부터 아동들 사이에서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나왔다.

거기서 우선 핸디캡 체험을 할 기회를 갖게 한다. 아동이 과제를 가질 수 있도록 마스크와 휠체어 체험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체험하는 것으로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의 부자유스러움이나 곤란함을 느끼게 한다. 다음은 지역에 나가게 한다. 이번에는 스스로 핸디캡의 종류를 선택해 그 장애를 고려해 목적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한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하리마 복지 분들의 생활에의 관심을 깊게하고 과제 의식을 갖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하리마 복지에 견학하러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해 주거나 교류를 가지거나 하면서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 자립해 생활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감지하게 하게 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학습을 통해 느낀 것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스스로의 방법으로 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한다.

보호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장애아 학급 아동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학습도 생각하고 싶다.

3. 목표

마스크 체험, 휠체어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학습을 하려고 한다. 장애를 가지는 사람에 있어 편리한 설비를 통해 일상 생활에 부자유스러운 것이 많음을 알게 한다.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부자유스러운 중에서 적극적으로 살아 있는 모습에 접해 자신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한다.

마음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표현하게 한다.

4. 활동 계획 10시간

장애 체험을 하자. <1> 아이마스크 휠체어 (학교 내)	2시간
장애 체험을 하자. <2> 아이마스크, 휠체어, 팔의 핸디캡, 입의 핸디캡 (지역에서)	2시간
하리마 복지로 견학하러 가자. 시각장애우, 휠체어 탄 사람, 팔이 불편한 사람, 말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않은 사람 (일, 모습, 가치관)	3시간
학습하고 생각한 것을 정리해 발표하자. (작문 포스터 비디오 PC)	3시간

5. 본시의 목표

자신이 선택한 장애에 따른 과제를 갖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생각을 탐색할 수 있다.

2. 호주의 장애체험

제 외국의 사례 중, 호주 사례는 인권교육으로서의 장애체험 교육 중, 시각장애 체험만을 수록하도록 하겠다.

□ 호주의 시각장애 체험 교육의 방법²⁾

학급의 학생 중, 절반의 학생은 눈을 가린다. 나머지 반수 학생은 각자 '시각장애 체험'으 하는 사람'집안에서 한 명의 짝을 골라(이때 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약 10분간 짝과 함께, 가능하면 안쪽과 바깥쪽 두 방향 모두에서 걷는다, '안내를 하는 사람'은 '시각장애체험을 하는 사람'이 힘들도록 해서는 안된다.

-> 조심성이 없는 학생과 함께라면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 도움의 필요성을 주입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신뢰는 배양되지 않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보행은 무리가 없어야 하며, '안내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장애 체험을 하는' 짝에게 가능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물건을 만져서 식별해 보도록 하고, 1분 동안 그들을 홀로 내버려둔다거나 평탄한 지면 위에서 함께 뛰어 본다. '안내를 하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노력한다. 약 10분쯤 후에 짝들 모두가 교실에 돌아와서 역할을 바꾸어 다시 짝 고르기를 한다.

일단 활동이 끝나면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의 정서적 반응을 말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 체험시의 공포감, 무력감 또는 자유의 느낌이나 '안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등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한다.

2) D. Wolsk,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An Experience-centred curriculum)」, 교육연구와 문헌 17호, 유네스코, 1975, 23~25쪽



2002 초등학교 장애체험 일일교사 강의안

본 강의안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장애체험이란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체험하여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하고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체험을 실시할 때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체험을 실시할 때는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 특수장애학생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다중장애, 기타장애
- ▶ 장애학생의 생활환경은 어떤가요?
 - 시각장애(시각장애) - 청각장애(청각장애) - 지체장애(지체장애) - 지적장애(지적장애) - 언어장애(언어장애) - 정신장애(정신장애) - 다중장애(다중장애) - 기타장애(기타장애)

▶ 장애학생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 장애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체험 일일교사 왕태운

척수 손상이란...?

- 후천성(중도) 장애인과 선천성 장애인 -

안녕하세요?

장애체험 일일교사를 맡게된 왕태운입니다.

저는 1992년 11월 23일 교통사고로 경추 2, 3번의 손상으로 전산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경추(목뼈의 일부)로서 7개가 있습니다. 손상이란 그 중에 윗 부분이 다칠수록 마비상태가 더 심하며 균형감각 또한 잃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목 밑으로 감각이 전혀 없으며 어깨만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호흡기관이 손상을 입어 폐활량이 정상인의 5%입니다.

1992년부터 8년 동안 180도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 회복되어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 척수장애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 까요?

척추에는 경추, 흉추, 요추가 있습니다.

☞ 경추 - 목뼈(사지마비) - 7개가 있습니다.

☞ 흉추 - 가슴뼈(하지마비) - 12개가 있습니다.

☞ 요추 - 허리뼈(하지약화) - 5개가 있습니다.

☞ 참고로 본인은 경추손상에 속합니다.

▶ 중도 장애인이란...?

장애에는 선천성 장애와 후천성 장애(중도 장애)가 있습니다.

☞ 선천성 장애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오토다케('오체불만족'의 저자, 팔·다리가 없음), 구원이(팔·다리가 없음)

☞ 중도 장애란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 크리스토퍼 리브(슈퍼맨, 말을 타던 중 낙마하여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 베토벤(청각장애), 강원래(하반신마비), 헬렌 켈러(시각, 청각장애)

▶ 장애인을 도와 주는 보장구의 종류와 쓰임새

- ☞ 마우스 스틱(Mouth Stick) - 입으로 키보드를 치는 기구
- ☞ 헤드 포인터(Head Pointer) - 머리에 쓰고 키보드를 치는 기구
- ☞ 손가락 끼우개(Keyboard Puncher) - 손가락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치는 도구
- ☞ 페이지 터너 (Page Turner) -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책의 원리를 이용하여 책을 넘기는 기구
- ☞ Philadelphia Brace - 목을 고정시켜 주는 기구
- ☞ Halo Vest - 척수 손상 초창기에 척추를 고정시켜서 더 이상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주는 기구 (강원래가 쓰고 다니던 기구)
- ☞ 클렌작(Klenzak) - 발이 처지는 것을 막아주는 특수 신발
- ☞ 보행 보조기(Walker) - 다리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양손으로 짚고 걷는 연습을 하는 기구
- ☞ 장하지 보조기(Kafo) - 다리가 약한 사람들이 다리 전체 (허벅지에서 발목까지, 신발 포함)까지 끼고서 걸거나 서는 연습을 하는 기구

▶ 휠체어를 미는 방법

- ☞ 경사로(언덕길)를 내려올 때 뒤에서 잡고 뒷걸음으로 내려온다.
- ☞ 언덕길을 오를 때에는 뒤에서 밀어 준다(몸의 무게 중심을 앞으로 하면 뒤에서 미는 사람이 수월하다.).
- ☞ 오르막 길을 올라가는 휠체어 타는 사람을 보면 꼭 뒤에서 밀어준다.
- ☞ 턱이 있는 도로에서는 앞바퀴를 턱 위에 올려놓은 다음 뒤에서 밀어준다.
- ☞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에는 내림, 열림 버튼을 눌러 준다.
- ☞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는 문을 열어 주고 닫히지 않게 잡아준다.
- ☞ 휠체어는 장애우의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로 만지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 ☞ 정지시에는 잠금장치(브레이크)를 잠궈둔다.

▶ 휠체어 장애인과 같이 있을 때 유의할 사항.

- ☞ 욕창 :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썩습니다.
한시간에 한번씩은 몸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 ☞ 기립성 저혈압 : 앉아 있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갑자기 낮아져서 어지럽거나 심할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 넬라톤 : 척수장애인들은 배설기관도 마비되어 소변을 볼 때 인위적으로 4시간마다 빼내야 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가면 화장실부터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타박상 : 감각이 없어 멍이 들거나 피가 나도 아픈 것을 모르니 어디간에 긁히거나 부딪혔을 경우 보호자가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1.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97년도 5월에 장애우가 된 류경돈이라 합니다.
 그리고 친구하나를 소개 할까요. 사고가 난 뒤 의사선생님의 소개로 그 친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를 생각만 해도 너무 싫었고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싫던 그 친구가 이제는 하루도 떨어지기 싫은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저와 같이 여기 왔습니다. 바로 저의 휠체어입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여기 이 친구는 나를 한번도 떠난 적이 없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죠. 내가 화났을 때도, 장애우로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이 친구는 제 곁에서 묵묵히 절 지켜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휠체어가 아닌 진정한 친구 한 명쯤은 곁에 두면 참 행복하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친구를 위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2. 척수장애(마비)의 이해

여러분 지금 모두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이제 앉으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일어나 앉았죠.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여러 복잡한 명령과 그 명령의 복종 체계가 한 순간에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 첫째는 여러분은 일어나 보시라는 저의 이야기를 귀로 들었죠.
- 둘째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 머리 속에 있는 뇌가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 셋째는 뇌에서 판단이 끝나면 그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신체부분에 여러분의 뇌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하겠죠.
- 넷째는 뇌와 다리사이에 전화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경선을 따라 신경전달물질이 전달됩니다.
- 다섯째 전달물질이 다리까지 잘 전달되면 다리에서 그 신호를 받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단계들이 한 순간 진행되다 보니 여러분이 잘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목에서부터 꼬리뼈까지를 우리는 척추라고 합니다. 그 뼈 속에 순두부처럼 가득 차있는 것이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뼈가 부러졌거든요. 아주 드문 예지만 운이 좋은 사람들은 척수 뼈가 손상되도 그 안에 있는 신경에는 손상이 없어서 뼈만 아물면 다치기 전처럼 잘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척추 뼈를 다치면 그 속에 있는 신경 선이 손상을 입고 마비가 오는 것이죠. 당연히 신경 선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뇌에서 명령을 내려도 신경전달 물질이 내려가다가 그 목적지까지 도달 못하고 손상된 부분에서 전달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저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목뼈 중 5, 6번을 다쳤기 때문에 어깨는 움직일 수 있지만 손가락과 발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깐 다친 부분 위쪽에 어깨로 가는 신경 선이 있는 것이죠. 목뼈와 바로 연결된 등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그 사이에 다친 사람은 팔이나 손은 다 사용하는데 다리를 쓰지 못해요. 이렇게 신경이란 다친 부분 밑으로는 신경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3. 장애인으로서의 힘든 일상생활과 사회적 편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이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 하나 하나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기 위한 외출 시 (값비싼 택시, 탑승이 불가능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 그 밖의 예...

4. 여러분의 도움

이러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밖에서 만나는 장애우들도 여러분 주위의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밖으로 다니는데 어떤 것이 불편한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요. 그러면 우리 장애우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편견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를 입은 사람들인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지금 다친 지가 한 11개월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다친지 궁금하시죠? 친구하고 부패집에 가서 창가에 앉아 두손으로 문틀을 잡고 있는데 친구가 공을 던져주는 것을 받다가 뒤로 허리가 꺾여져서 그만 3층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지구가 위험할 때마다 주먹을 지고 어깨를 펴면서 하늘을 날아 다니는 사람 말이죠. 지진이 나서 여자친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니깐, 지구를 반대방향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돌아 다시 자기 여자 친구를 살려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 승마를 타다가 그만 목 부분 바로 뒷 부분에 있는 경추 2번째 뼈를 다쳐 버렸어요.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여러분 뒤에 있는 목덜미를 한번 만져 보세요, 뼈가 잡힐 거예요. 그 두 번째 마디를 다친 거예요.

여러분! 피부에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죠? 그러면 2주 정도면 나아요. 그런데 척추는 한번 손상되면 낫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똑같이 척추를 다쳤는데도 어떤 사람은 팔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팔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은 다친 부위가 흉추냐 경추냐에 따라서 또는 요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슈퍼맨 같은 경우는 경추이고 강원래씨나 저 같은 경우는 흉추를 다친 거예요.

저와 강원래씨 같은 사람을 중도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한 채로 태어난 사람들은 선천적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다친 사람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다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중도 장애인이 많을까요?

여러분 장애인 중에는 거의 90% 이상이 중도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처럼 걸어다니는 환자보다 세상에

몸을 다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만큼 환자도 많고 또한 환자들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전에 신동엽의 하자하자 방송 때, 폭주족들한테 신동엽씨가 헬멧을 쓰고 다니자고 했던 말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다쳐요. 제가 아는 동생들도 몇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만 척추를 다쳐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오토바이를 타게 되더라도 꼭 헬멧은 쓰고 다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몸이 불편한 것 말고는 특별한 다른 것이 있을까요?

제가 거의 지금껏 겪어온 1년동안 휠체어 생활을 통해서 느낀 것은 장애인 일수록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손을 다쳐 피가 난다면 여러분은 과거에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시지요.

마찬 가지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듯이 여러분처럼

똑같이 느끼지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중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갈 때에 장애인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의 따뜻한 급우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애체험 일일교사를 맡게된 이창순입니다.
 저는 대전체고 수영선수였습니다 1991년 5월 13일 시합을 앞두고 연습하던 중 (스타트)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4-5번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옆에 이덕만 선생님처럼 경추 4-5번이지만..
 불안전마비라서 팔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꿈치를 구부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같은 지체장애인은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밥먹는 것부터 용변 보는 일까지..
 일어나서 부터 잘 때까지 보호자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조기가 있으면 보호자의 도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기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줄일 뿐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좌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런 보조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1) 보조기

술가락(포크)... 타이핑보조기.. 다용도 밴드.. 펜글씨 보조기... 멜라톤기구..
 소변백.. 소변통..
 마우스 스틱(Mouth Stick) - 입으로 키보드를 치는 기구
 헤드 포인터(Head Pointer) - 머리에 쓰고 키보드를 치는 기구
 휠체어.. 전동휠체어..

지금까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필요한 편의시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치고 나서는 10년을 넘게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 친구들이나 봉사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주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계단이 높아 저를 들어서 대문 밖에까지 들어다 줘야하니까

힘센 친구나 남자봉사자들이 꼭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쉽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러브하우스란 프로그램에서 집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치고 나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겠더군요..
 리모콘으로 작동되는 창문 커튼, 실내등, 턱없고 넓은 화장실 등 집안의 편의시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외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게 됐습니다
 집안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졌지만 외출해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칩니다..
 집앞까지는 쉽게 나오지만 길가로 나가면 턱과 계단들..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 하나같이 이동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슈퍼나 은행을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턱이나 계단이 없어지고 경사로가 많이 갖추어진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자주 외출하는데 도움이 될텐데 아쉽게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더 멀리 간다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등에 있어 더 많은 제약을 받겠죠, 전 다치고 나서 한번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적이 없을 정도니까요
 현재는 많은 부분을 보호자의 도움으로 생활하지만..
 보조기와 편의시설이 많아진다면 장애인이 일반 비장애인처럼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도움이 최소화 됩니다.
 아직까지 이동은 보호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편의 시설이 갖춰지면 보호자의 도움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되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은 특별한 도움을 줘야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부담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고 친구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 시설은 현재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만명 가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만명 전후가 장애인이 된답니다.
 각종 산업재해, 사고, 질병을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겠지요.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을 예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처럼 운동하다 또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질병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가 85년 81.2%,90년 85.2%,95년 88.1%,2001년에는 89.4%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발생 증가추세가 예방 가능한 사고와 재해 등 후천적 장애 영역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선천적 장애 비율보다 후천적 장애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장애인이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예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설이 갖추어져서 장애인들이 외출하고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면 장애를 갖게 됐다구 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거나 격리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걸 모두가 느낄 겁니다. 직장 학교에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해 본 사람들은 처음엔 불편하고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좀 익숙해지면 특별한 것 없는 동료, 친구가 된답니다.

여러분도 장애인과 친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애인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하는 이웃(친구)입니다..

2002 초등학교 장애체험

소감문

장애체험활동을 마치고.....

상계초등학교 6학년 2반 김다솔

9월 23일, 우리 6학년 2반은 '장애체험활동'을 했다. 처음엔 지루할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끝내고 다시 생각하니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시간은 다리가 불편하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았다.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 오신 분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을 처음 봐서 그런지 조금은 낯설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처음의 낯설음은 사라졌다.

그렇다, 장애인들도 나와 같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은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로 분류해서 활동을 해보았다. 나는 휠체어를 타고 지체장애활동을 하였다. 처음엔 내 짝이 휠체어를 타고 슈퍼에 가서 음료수를 사오고, 나중에 내가 휠체어를 탔다. 솔직히 말하자면 길거리를 휠체어 타고 다니니 조금은 창피했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그런데 재미도, 창피함도 잠시....

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팔이 너무 아팠다. 장애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곳곳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젠 장애인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리 속에 맴돈다.

어릴 때에는 아니, 이 장애체험활동을 하기 전까진 장애인이 나와 같지 않고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장애인과 우리들....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시설을 잘 갖추어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를 갖으신 분들!! 힘내세요!!

내가 만난 장애우

대구대명초등학교 6학년 3반 김태수

나는 3년전 횡단보도 앞에서 앞을 못보는 시각장애인 아저씨를 보았다. 그때는 철도 없고 그 아저씨가 데리고 있는 안내견이 귀여워 그 아저씨는 재미있겠다고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초등학생 장애체험교실'에서 하루동안 보고,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보고는 마음이 달라졌다. 시각장애인은 앞이 보이질 않아 두렵고,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들어 우리보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장애인도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다고, 장애인은 그저 우리보다 아주 약간 몸의 형태가 다르거나 정신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와 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와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장애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장애인용'이 아니라 '장애인 겸용'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또 이런 다짐을 하였다.

1. 장애인을 놀리지 않겠다.
2. 길에서든 어디에서든 장애인을 만나면 겁내지 않고 도와주겠다.
3. 장애인과 친하게 지내겠다.
4. 장애인을 우리와 다른 그런 사람으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5.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자.
6. (어른이 되면) 장애인을 도와주고 편하게 지내고 (잠시 내 꿈은 과학자) 장애인을 위한 아니 장애인과 우리들을 위한 '장애인 겸용'으로 편의시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도 유명한 위인이 많다.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와 동등하며 우리와 똑같이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과 우리간에는 차이가 전혀 없는 동등한 사람들이다.'

모두 다 똑같은 사람

대구대명초등학교 6학년 5반 박지은

모든 장애우들에게 ...

안녕~? 나는 대명초등학교에 다니는 박지은이라고 해 나는 오늘 초등학생 장애체험교실에 왔어,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애인만 보면 놀라서 달아나곤 했지... 하지만 여기에 온 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내가 체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지, 체험을 해보고 난 후라서 장애우의 불편에 대하여 조금 알게 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해

여기에 와서 목발도 쳐보고 휠체어도 타 보았어, 그런데 여간 불편한게 아니더라구, 진짜 장애우들은 불편해서 어떻게 살까? 하고 생각했지.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 지체장애,.... 뭐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장애우이면서도 성공한 훌륭한 분들을 보았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시각 장애우를 체험해 보았어, 설명을 잘 듣고 시작했어, 눈도 가려서 아무것도 안보이는 채로 지팡이만 의지하며 걸어갔지, 지팡이로 짚으며 걸어가도 잘 몰라서 옆에 의지하는 사람의 말도 들어야지만 갈 수 있었어, 그때, 나는 우리가 장애우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장애우들은 자기 혼자서 짚짚 맴 거라는 생각이 딱 꽂혔어....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고 장애우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깨달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의 어린이들과 어른들까지도 이런 체험을 꼭 한번쯤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오늘 이 체험을 해보고 이제는 정말 장애우들을 보고 막 무조건 피하고 놀리고 하지 않을 꺼야, 오늘 난 정말 많이 반성했어, 이제부터 장애우들을 보면 도울꺼라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며 놀리지 않고 위로할 꺼야, 그리고 지금도 생각해... 남녀평등, 평등한 사회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장애우, 비장애우,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해, 난 평등한 사회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걸 모두가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너희같은 장애우들 하기도 보통 친구들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럼 이만 줄일게 ... 안녕~~!

2002년 5월 17일

- 모두가 평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이가 -

장애체험을 마치고 느낀점

인천신흥초등학교 6학년 4반 이희주

나는 시각장애인 체험을 했다.

처음에는 무지하기 싫고 지루할 것 같았지만 진행하는 분들에 말씀과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 어떤 불편이 있는지 알고나니 참 보람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장애인을 만나도 꺼림직하지 않고 일반 사람을 대하듯 대해 질 것 같았다.

처음으로 안대를 했고 흰지팡이를 들고 지도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걸어나니 시각장애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앞이 안보이니깐 모두 두렵고 한 시라도 딴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꼭 절벽에서 있는 것 같았고 방향조절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모르고 빨간불도 언제 바뀌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계속해서 학교 → 인천여상 → 학교로 돌아오는 데에 지도선생님만 의지했다.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만약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오직 나 한명만 의지하고 걸어야 한다면 끔찍했다.

마지막으로 눈을 가리고 자장면을 먹을 때에도 무척 힘들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단무지를 잡으려 해도 엉뚱하게 깍두기가 잡혀서 속이 상하고 자장면이 입에 자꾸 묻어 번거로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오직 반성할 일만 떠올랐다.

앞으로는 장애인을 봐도 용보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대해 장애인들이 편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장애우 체험 글짓기

전라초등학교 6학년 3반 김동균

우리 반은 이번주 장애우체험을 하였다.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이번 토요일에 장애우체험을 하였다. 전북 10여개 학교 중에서 우리 학교가 뽑혀 그 중 우리 반만 장애우 체험을 하였다.

우리 반은 먼저 장애우체험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강의를 들었다.

그런 다음 밖에 나가서 직접 장애체험을 하였다. 아이들은 모두 단어를 보고 몸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나도 해 보니까 말을 못하는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으로 시각장애체험을 하였다.

나와 짝인 명찬이가 먼저 안대로 눈을 가리고, 내 팔을 잡고 흰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학교 운동장, 통학로를 돌았다. 그 다음은 내가 했는데 눈을 가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참 답답했다.

마지막으로 지체장애체험을 했다.

휠체어를 타서 바퀴를 밀고 가는데 팔이 아프고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답답했다. 그리고 장애체험이 끝났다.

나는 9월 28일에 처음으로 장애체험을 하였다.

처음 해본 장애체험이어서 힘들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

오늘 장애체험을 도와주신 아저씨, 형들도 몸이 불편하시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장애를 극복하신 것을 보니까 장애인이 아닌 내가 그분들께 폐를 끼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통학로를 돌아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장애물도 많아서 장애우 여러분께 불편한 게 많은 것 같다. 장애우를 배려하는 시설과 마음이 있다면 장애우들도 우리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다.

또 장애우를 차별하는 마음을 없애고 장애우들과 친구가 된다면 그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일 것 같다.

장애우 체험 글짓기

부산연천초등학교 6학년 6반 조이현

오늘 장애체험을 했다. 솔직히 말해선 휠체어를 타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체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반으로 오신 장애인 두분께서 장애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구내'하고 존경스러웠다. 하지만 난 그분들께서 웃음을 잃지 않고 계셔서 참 좋았다.

드디어 밖으로 나갔다. 무사히 신호등 앞까지 왔지만 음성신호가 없어서 참 불편하고 불안했다.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살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누가 시각장애인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로 돌아갈땐 내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조금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짝도 해냈다는 생각에 한발 한발을 내디뎠다. 다행스럽게도 학교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문득 내 머릿속엔, '우리 단지 몇 분을 체험했을 뿐이지만, 거의 모든 장애인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니,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불쾌감과 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바르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정말로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들을 사랑한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훨씬 더 많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엔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보다 설치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다.

특히 음성신호가 되는 신호등은 난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장애인 시설이 가장 잘 되어있다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교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들도, 곳곳에 생겨서 장애인들도 정상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2002 초등학교 장애체험 사진 속의 우리들

장애우 체험 캠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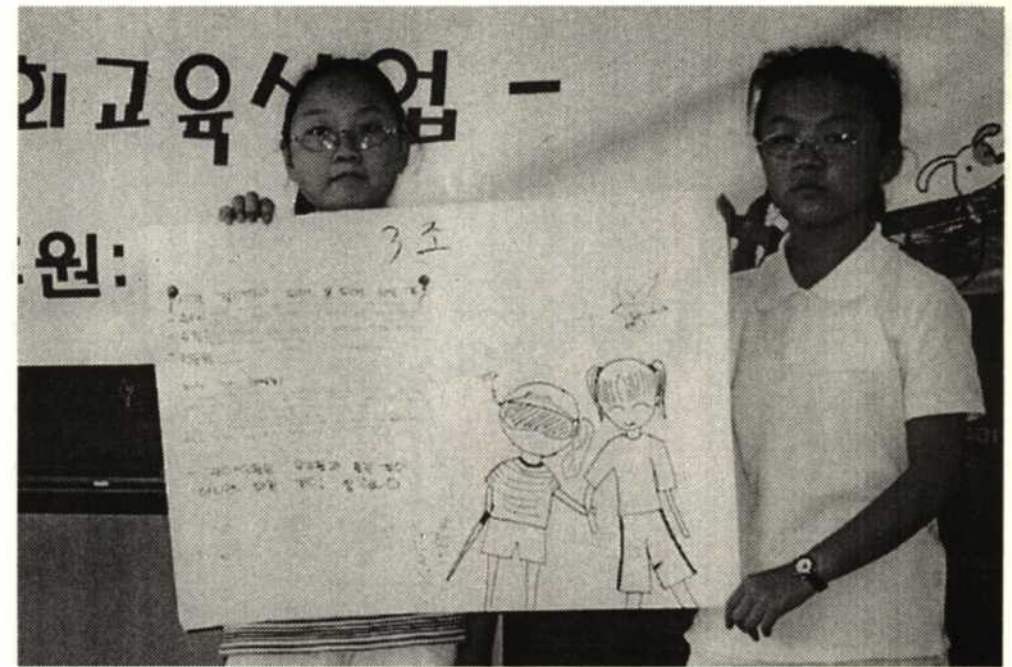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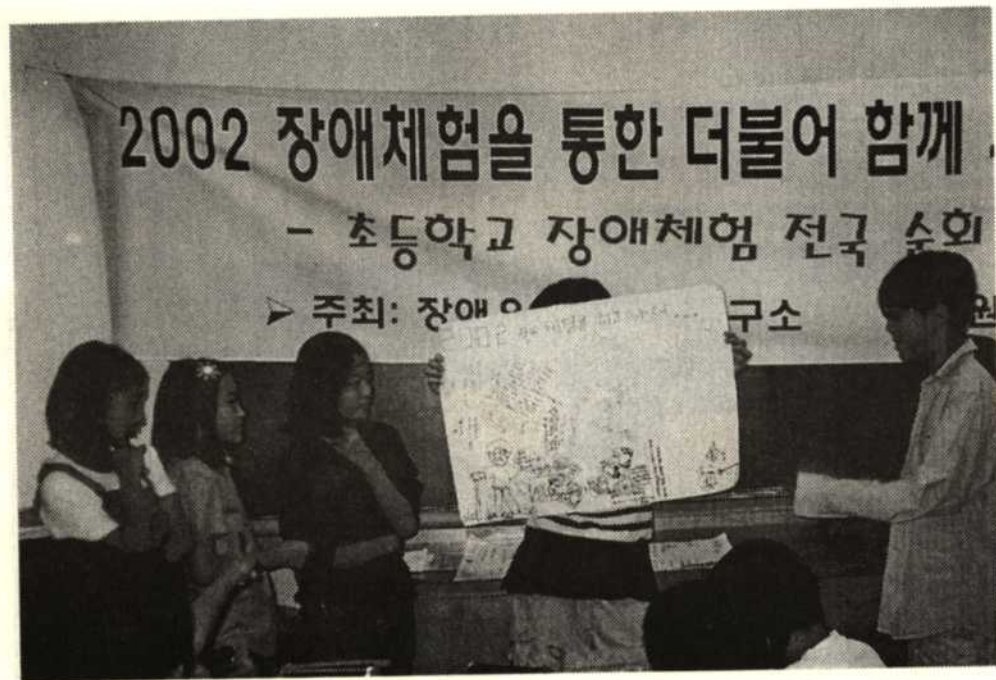
2002 장애우 체험 캠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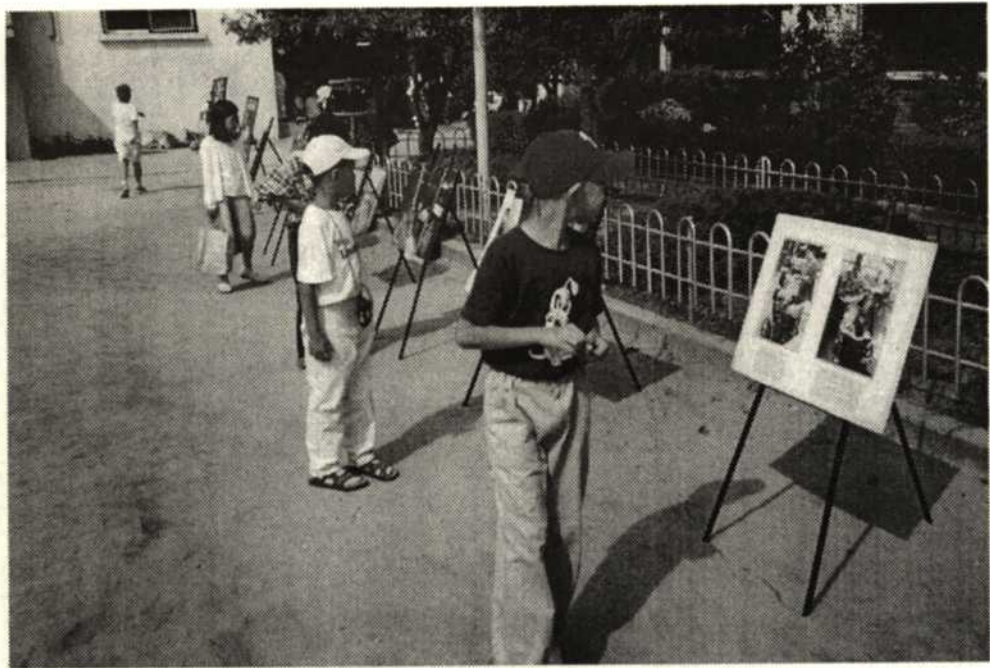
2002 장애우 체험 캠프기

클리어우인순수자연사

2002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클리어우인순수자연사(이하 '자연사')에서 장애우 체험 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는 장애인복지재단과 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복지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로 열렸다. 캠프에는 장애인 100여명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했다. 캠프는 장애우의 자아발견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우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캠프는 장애우의 자아발견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장애우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우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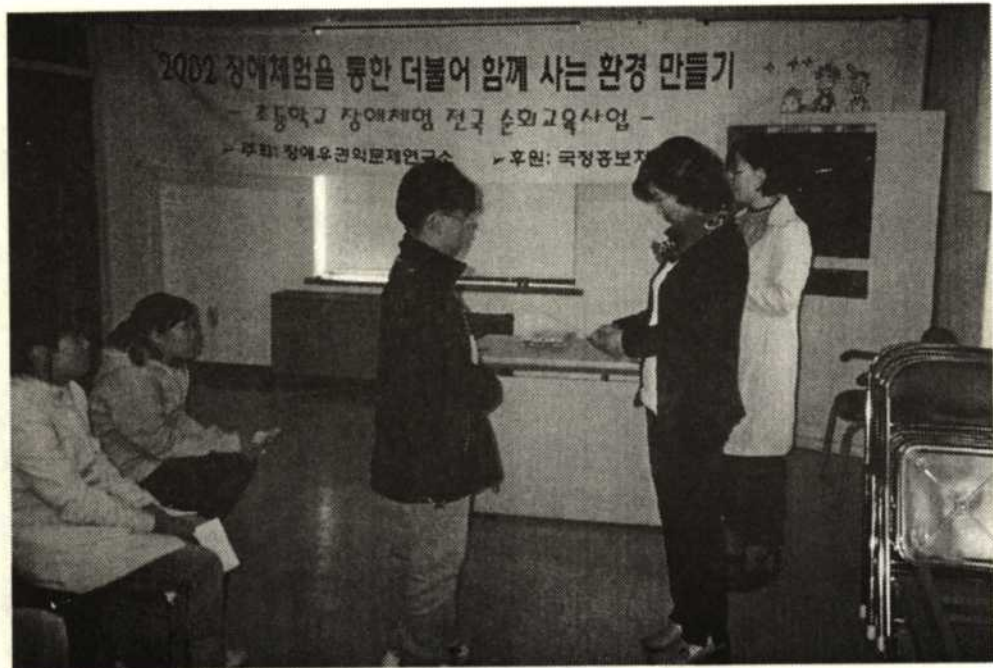














2002 초등학교 장애체험 보고서

2002년 8월 발행

발행인 : 이성재
편집인 : 김정열
연구자 : 박자영
삽화 : 이상윤
발행처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작 : 젊은기획 2264-2015

주소: 137-84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02) 521-5364 / 전송: 02) 584-7701
E-Mail: cowalk@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cowalk.or.kr>

- 이 책은 국정홍보처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